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의 타당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한국인 용서척도-단축형을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남녀 1,114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10문항), 1문항 용서 질문, Heartland 용서 척도, TRIM, Spielberger의 상태분노와 상태불안 척도, CES-D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은 양호한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 .87$)를 보여주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r = .73$).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변량 42.27%). 단축형 척도의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1문항 용서 질문에서 더 많이 용서했다고 반응했고, TRIM과 Heartland 용서 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용서 집단은 비용서 집단보다 용서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구성타당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용서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점수는 성별, 지역,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용서교육/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고등학생, 학교폭력, 용서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11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영희, (132-714)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대 심리학과, Tel: 02-901-8305, E-mail: yhoh@duksung.ac.kr

지금까지 사례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용서가 분노, 우울, 불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 충동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희망, 자이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분노감정의 통제, 부부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오영희, 2004, 2007; Controneo, 1982; Enright & Fitzgibbons, 2000; Worthington, Jr., 2005). 즉, 심리학적 연구들은 용서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용서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용 지표는 분노, 우울, 불안이다. 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외국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용서는 분노와 $-.26 \sim -.44$, 우울과 $-.34 \sim -.51$, 불안과는 $-.15 \sim -.43$ 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Mullet, Neto & Rivere, 2005).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박종효, 2006; 오영희, 2004, 2007).

또한 용서는 신체건강을 향상시켜주는 데, 그 생리학적 매개과정을 살펴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교감신경, 심혈관, 면역 및 내분비체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는 반면에 용서반응은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여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박종효, 2003).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데도 그동안 무시되고 있다가, 최근에 대구의 중학생 자살사건¹⁾을 계기로 최고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거의 매일 마스크에서 학교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뒤늦게나마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대책 모두에서 용서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 용서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첫째, 학교에서 용서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학생들의 공감과 수용 능력을 키워주고 학생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클 것이다. 실제로 현재 외국에서는 용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예방적인 갈등해결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Enright, Gassin과 Knutson(2003)은 심각한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와 미국 밀워키 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초등학교에서 용서교육을 실시하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용서는 특히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사후대책으로서 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자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 가해자, 단순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는 학교폭력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단순 피해자들이 폭력에 대해 수동적이고 위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들은 폭력적 또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화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박종효, 2011). 이 때문에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하게 된다. 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폭력대물림’ 사건에서는 몇 명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건방

1) 이 사건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 김군에게 친구들이 2011년 9월부터 석달 동안 자신들을 대신해 인터넷 게임 실적을 쌓도록 강요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김군을 목검, 단소, 클러브 등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는 일을 계속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김군이 자살한 사건이다(매일신문, 2011).

지다”며 땅에 파묻는 등 기성세대의 조폭을 뽑칠 정도로 괴롭혔지만, 그 선배들도 이전에는 피해자였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박태우, 2012). 이 사건은 공격적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내적인 것으로 용서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을 통해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박종호, 2003; Enright & Fitzgibbons, 2000). 따라서 용서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유의할 것이다. 특히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자나 단순 피해자 집단보다도 학습, 사회, 심리 그리고 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심각하게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Hsynie et al., 2001; 박종호, 2011에서 재인용). 또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위험한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격적 피해자 집단에 용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종호(2011)에 따르면 공격적 피해자를 위한 용서 프로그램은 공격적 피해자가 자신의 공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서 왜곡된 사회지각을 바로 잡고 증폭된 분노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용서의 또 다른 장점은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용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Gouldner, 1973).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에 용서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김준호 등, 2003).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와 후유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용서는 당사자들간의 화해를 향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책으로서 용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효과적인 용서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맞는 용서프로그램과 용서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서연구들은 외국의 용서 척도와 용서과정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광수, 1999; 오영희 200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 척도이다. 용서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 척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서 척도들은 외국 척도들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용서 척도들은 일부 문항의 부적절성,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의 부적합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오영희, 2010).

이에 본 연구자는 용서문헌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얻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24문항의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오영희, 2008, 2010). 용

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에 맞게 상처를 받은 특정 상황에서의 대인 용서에 대한 척도를 먼저 개발하였다²⁾. 여기서 용서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그런데 한국인 용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살펴 보았더니 용서가 외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지, 정서, 행동반응으로 구성된 3요인 이라기 보다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희, 2008, 2010). 용서를 통합적인 1요인으로 본다면 굳이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용서척도의 문항을 줄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단축형 용서 척도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첫째, 척도 작성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둘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예: 말기암 환자, 정서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용서 척도를 사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셋째, 문항수가 작으면 한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수가 늘어나므로, 용서와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인 용서 척도의 단축형(10문항)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오영희,

2011). 24문항의 전체형 척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신뢰도(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고,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는 전체형과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형 척도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단축형 척도는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유의한 용서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50대의 성인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용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후대책으로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가해자를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인용서 척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 한국인 용서척도-단축형을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 1문항 용서 질문과의 상관, 다른 용서 척도들과의 상관, 용서와 비용서집단의 용서점수 평균차이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준거관련 타당도는 용서와 대표적인 부적응 변인들(불안, 분노, 우울)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2)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에는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EFI, Subkoviak et al., 1995),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TRIM, McCullough et al., 1998, 2000)가 있다. 반면에 용서를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는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Inventory(Tangney, Fee, Reinsmith, Boone & Lee, 1999), Heartland Forgiveness Scale(Thompson et al., 2002)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대인용서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김지영, 권석만, 2009).

방 법

참여자

참여자들은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심각한 상처의 기준은 용서 척도에 있는 “그 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상처받지 않음)에서 5점(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음)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보통이상으로 상처받음)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상처점수의 평균은 4.22(표준편차 .70)로, 참여자들은 타인에게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자는 1,114명이고,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 오영희(2011)가 개발한 10문항 척도로서, 용서한 뒤에 나타나는 정

서반응을 측정하는 4문항, 인지반응을 측정하는 2문항,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참조).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각각 5문항씩이다. 용서반응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용서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용서를 많이 한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단축형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고, 대학생 95명에게 4주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1문항 용서 질문.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1문항으로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해관련 대인관계 동기 척도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 McCullough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특성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479	43.0
	여자	634	57.0
거주지역별	서울	250	22.4
	경기도	90	8.1
	충청도	353	31.7
	전라도	214	19.2
	경상도	207	18.6
종교별	기독교	379	34.1
	불교	159	14.3
	기타	10	0.9
	무교	563	50.7

등(1998, 2000)이 개발한 이 척도는 한국인 용서 척도와 유사하게 특정한 상처(가해)를 입힌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특수상황적인 대인관계 용서척도로서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TRIM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총 12문항인데,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회피 동기를 측정하는 7문항과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복수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번역은 본 연구자가 국문으로 번역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심리학전공자가 영문으로 역번역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원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McCullough 등이 보고한 전체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는 .94, 회피동기는 .93, 복수동기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복수동기가 높고 용서가 낮은 것이다(범위: 전체척도는 12-60점, 회피동기는 7-35점, 복수동기는 5-25점).

Heartland 용서 척도(HFS). Thompson 등(2002)이 개발한 이 척도는 일반적인 용서성향(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HFS는 총 18문항으로, 부정적인 일이 자신의 행동때문에 발생했을 때 자기를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용서성향 6문항, 타인의 행동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타인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타인용서성향 6문항, 통제할 수 없는 상황때문

에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상황용서성향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번역은 위에서 언급한 TRIM의 번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HFS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ompson & Snyder, 2003). 외국 연구에서 보고된 HFS의 신뢰도(Cronbach α)는 전체척도는 .84-.87, 하위척도는 .71-.83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는 .83, 자기용서성향은 .65, 타인용서성향은 .71, 상황용서성향은 .69로 나왔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성향이 높은 것이다(범위: 전체척도는 18-126점, 각 하위척도는 6-42점).

분노 척도.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역하고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경구 등이 보고한 상태분노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왔다. 상태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이다(범위: 10-40점).

불안 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6)가 번역하고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상태불안 검사 20문항,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특성불안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상태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범위: 20-80점). 한덕웅 등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Cronbach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왔다.

우울 척도.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서 정신병리적인 우울보다는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검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판 검사도구를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까지 Likert식 4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정하였다. 전경구 등(2001)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0이 나왔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범위: 0-60점).

절차와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생 4명(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예

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2011년 10월에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불안 척도, 분노 척도, 우울 척도, Heartland 용서척도, TRIM,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0-20분 정도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9.0와 AMOS 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은 Cronbach α , 평균, 표준편차, Pearson r , t 검증, 변량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축형 용서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원변량분석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지역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뢰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축형 10문항의 신뢰도는 .87로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고등학생 82명에게 4주 간격으로 용서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73으로 나타났다.

구성타당도

단축형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ryer-Olkin)지수는 .88로서 문항간 상관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45, N = 1114) = 4550.09, p < .001$.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 결과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의 요인이 1개 추출되었다. 이 요인의 고유가는 4.27이고, 설명변량은 42.27%였다.

AMOS 4.0을 이용하여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χ^2 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

면서 만족스러운 적합도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표 1을 보면 1요인 모형의 χ^2 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범위는 .39-.76이며, 모두 유의미하였다(부록 1에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

표 2.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788.58(35)	.000	22.53	.95	.97	.12

표 3. 연구변인들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용서(단축형)									
2. 복수동기	-.62								
3. 회피동기	-.79	.66							
4. 자기용서성향	.21	-.14	-.14						
5. 타인용서성향	.42	-.41	-.35	.41					
6. 상황용서성향	.24	-.19	-.15	.59	.51				
7. 상태불안	-.32	.16	.19	-.49	-.30	-.42			
8. 상태분노	-.29	.26	.21	-.30	-.26	-.30	.52		
9. 우울	-.31	.14	.20	-.49	-.28	-.42	.71	.52	
평균	28.64	12.59	21.32	25.73	24.39	25.33	45.03	14.45	39.56
표준편차	8.39	5.84	8.11	4.98	5.42	5.20	10.39	5.25	10.22
문항내적일치도	.87	.93	.93	.65	.71	.69	.92	.92	.90

N = 1,114,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해자를 얼마나 용서하였는지를 물어보는 1문항 용서 점수(범위 1-5점)와 단축형 용서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더니,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었다($r = .71, p < .001$). 즉, 한국인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구성타당도의 하나인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과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용서척도들과의 상관도 비교해보았다. 표 3을 보면 한국인 용서척도-단축형은 이 척도와 유사하게 상황특수적인 대인용서를 측정하지만 동기의 변화로 평가하는 TRIM의 복수동기($r = -.62$)와 회피동기($r = -.79$)와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일반적인 용서성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과는 유의미하지만, 중간정도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자기용서성향과는 $r = .21$, 타인용서성향과는 $r = .42$, 상황용서성향과는 $r = .24$)

마지막으로 한국인 용서 점수가 용서집단과 비용서집단을 구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문항 용서 점수를 이용해서 용서집단(4점 이상)과 비용서집단(2점이하)로 나눈 후에 두 집단 간에 한국인 용서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737) = 27.81, p < .001$. 용서집단(평균 34.78, 표준편차 7.46)은 비용서집단(평균 21.05, 표준편차 5.61)보다 용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준거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용서 점수와 부적용 점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용서와 상태불안과는 $r = -.32$, 상

태분노와는 $r = -.29$, 우울과는 $r = -.31$ 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용서를 많이 할수록 불안, 분노, 우울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석: 상처의 정도, 종교, 용서의 관계

용서 점수는 상처의 심각성($r = -.33$), 상처의 부당성($r = -.29$)과 모두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상처가 심각할수록, 상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용서 점수는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와 종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간 용서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더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099) = -.02, p > .05$. 종교별(기독교, 불교, 무교)로 나누어서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98) = 1.30, p > .05$.

논 의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용서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한국인 용서척도-단축형을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고등학생 대상과 성인대상 타당화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쉽게 표 4로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축형

용서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7로 중간 수준 이상이었다. 또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r = .73$).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도 대체로 양호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변량은 42.27%였다.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χ^2 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χ^2 값은 표본크기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이 큰 연구에서 χ^2 검증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RMSEA 값이 .12로 나쁜 적합도를 보인 것은 문제가 된다. RMSEA 값을 낮추기 위해 추후에는 용서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오차변량들끼리의 공변량을 가정할 수정모형을 만들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 용서 점수는 1문항 용서 질문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r = .71$)을 보였는데,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서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서 용서집단은 비용서집단보다 용서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과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용서 척도들과의 상관을 비교해보았다.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은 이 척도와 유사하게 상황특수적인 대인용서를 측정하지만 동기의 변화로 평가하는 TRIM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복수동기와의 $r = -.62$, 회피동기와의 $-.79$). 반면에 일반적인 용서성향을 측정하는 HFS의 하위척도들과는 유의미하지만, 중간정도의 상관($r = .21 \sim .42$)을 보여줌으로써 수렴타당도를 입증해 주었다.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용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수인 분노, 불안, 우울과 용서점수와의 상관관계를

표 4. 한국형 용서 척도-단축형의 성인 대상 연구와 고등학생 대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비교

구분	종류	성인 대상 (N=1,560)	고등학생 대상 (N=1,114)
신뢰도	문항내적 일치도	$a = .86$	$a = .87$
	검사-재검사 신뢰도	$r = .78$	$r = .73$
구성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1요인 (설명변량 44.80%)	1요인 (설명변량 42.27%)
	확인적 요인분석	부분적으로 수용	부분적으로 수용
	1문항 용서질문과의 상관	$r = .78$	$r = .71$
	용서와 비용서집단 구분	유의함	유의함
TRIM 용서척도	복수동기	$r = -.62$	$r = -.62$
	회피동기	$r = -.76$	$r = -.79$
	HFS 용서척도 하위요인들	$r = .25 \sim .39$	$r = .21 \sim .42$
준거관련타당도	상태분노	$r = -.27$	$r = -.29$
	상태불안	$r = -.24$	$r = -.32$
	우울	$r = -.27$	$r = -.31$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는 분노, 불안, 우울과 $-0.29 \sim -0.32$ 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도(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고,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척도는 성별, 지역,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용서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감과 수용능력을 키워주고 갈등을 줄일 수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사후대책으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데도 용서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대책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용서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척도를 이용해서 용서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고, 용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임의표집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무선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한국인 용서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서와 같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록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없는 문항만을 선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앞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가해자나 제 3자의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특수 상황적 용서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용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의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에서 용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에 해당되는 척도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인 용서 척도와 다른 용서 척도들, 다른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분석 등을 통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 권석만(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 매일신문(2011, 12, 24). 대구 자살 중학생 수개월간 또

- 래들이 '학대'. <http://www.imaeil.com>에서 2012, 2, 20 인출.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종효 (2011). 용서, 행복에 이르는 길.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박태우(2012, 2, 16). "건방지다" 땅에 파묻은 고교생... 조폭 뺨친 선후배 '폭력 대물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에서 2012, 2, 20 인출.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영희(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 오영희(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 오영희(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0), 60-78.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xel, 241-244.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Gassin, E. A., & Knutson, J. A. (2003). Waging peace through forgiveness education in Belfast, Northern Ireland: A review and proposal for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3, 51-61.
- Gouldner, A. W. (1973). *For sociology: Renewal and critique in sociology today*. London. Allen Lane.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W.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ullet, E., & Neto, F., & Riviere, C. (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reveng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angney, J., Fee, R., Reinsmith, C., Boone, A. L., &

- Lee, N. (1999).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opensity of forgive*. Paper presented at 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rthington, Jr., L.(Ed.)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2002).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원고접수일: 2012년 3월 2일

게재결정일: 2012년 5월 10일

Validation of the Korean Forgiveness Scale-Short Form: For High School Students

Young Hee Oh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Forgiveness Scale-Short form (KFS-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sample consisted of 1,114 10th grade students. The measures included the KFS-S,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Heartland Forgiveness Scale (HFS),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 Spielberger Anxiety and Anger Scale, and CES-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FS-S had a relatively good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87$) and an acceptable test-retest reliability ($r=.73$). Both explan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ggested that the KFS-S had one factor which explained 42.27% of the total variance. The KFS-S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It also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ther forgiveness measures (HFS and TRIM). In addition, the forgiveness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KFS-S scores than the non-forgiveness group. Finally, the KFS-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KFS-S ha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high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forgiveness scale, reliability, validity

부록 1.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의 평균(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표준화계수

	문항	<i>M(SD)</i>	문항-전체상관	표준화계수
1.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다.*	2.75(1.21)	.67	.70
2.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2.48(1.11)	.69	.76
3.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 ^E	3.31(1.22)	.67	.70
4.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2.85(1.21)	.61	.67
5.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2.71(1.26)	.49	.51
6.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3.64(1.30)	.39	.39
7.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2.98(1.34)	.63	.70
8.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2.93(1.24)	.44	.48
9.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2.64(1.22)	.60	.68
10.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2.35(1.32)	.68	.74

* : 역산문항(1, 3, 5, 6, 8번)

^E : EFI와 동일한 문항(1개)